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9월 7일 · 제 373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LA/LB항, 실시간 트럭 배송관리 모바일 앱 활용 혼잡 문제 해결 기대
2. 러시아 숨마그룹, DP월드와 손잡고 러시아 극동개발 본격화
3. Drewry, 컨테이너 박스 임대업계 어려움 지속
4. 아부다비, 칼리파 항만 확장으로 세계 최대 선박 수용 예정

| 물류시장동향 |

1. 호주 규제당국 멜버른 항 임대계약 경쟁유도
2. 헤이룽장 성, 연해주 지역 항만 통해 연간 6천만 톤 운송 계획





물류정책 · 사업동향

LA/LB항, 실시간 트럭 배송관리 모바일 앱 활용 혼잡문제 해결 기대

- LA/LB항 터미널 트럭운송업자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GeoStamp를 활용한 실시간 트럭 배송 관리로 LA/LB항의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 InfoMagnus사는 Geostamp를 지난 수년간 개발해 왔는데 LA/LB항을 넘어 남부 캘리포니아 트럭 회사들이 GeoStamp를 사용하고 있으며 휴스턴항과의 협의회도 9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동 창업자인 Sal Manzo씨가 언급함
- GeoStamp는 트레일러 사용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Manzo씨가 언급함
 - LA/LB항의 13개 컨테이너터미널 중 하나에 도착하는 트럭 회사들은 터미널내의 위치, 하루당 시간별, 주간당 일자별로 트럭시간을 합하고 분해할 수 있음
- 또한 GeoStamp가 제공하는 트럭 운영상태 정보는 항만트럭협회(HTA, Harbor Trucking Association)의 데이터보다 정확도가 높은 편임
 - 2013년 이후 HTA는 컨테이너터미널별 트럭 입출고 시간에 대한 월별 리포트를 발행했으나 게이트 열기 전 미리 도착한 트럭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oStamp는 미리 도착한 트럭 대기 시간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HTA 전무이사인 Weston LeBar씨가 언급함
- GeoStamp 제품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병목 작업을 해결하고 공급 사슬 내 다른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효율화시켜 화주와 터미널 운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남부 캘리포니아의 6개 항만의 트럭 회사들은 GeoStamp를 사용해서 항만터미널 운영상태에 대한 주간 및 월간 정보를 수집하여 혼잡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음
 - BCO(beneficial cargo owners, 대형화주)와 터미널운영자들도 컨테이너 운송과 트럭 회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Southern Counties Express사의 영업 관리자인 Sherry Hertel씨는 GeoStamp를 사용해서 트럭이 방문하는 터미널에서 매 5분마다 갱신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대기열이 증가하거나 차시(chassis)가 부족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 Quick Pick Express사의 사장인 George Boyle씨는 운송 장비를 최적화하고 터미널에서 반복되는 이슈를 발견하기 위해서 GeoStamp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언급함
 - LA항의 Yusen 터미널도 사용료가 합리적이라면 GeoStamp 가입을 고려하고 있고, 대형화주도 GeoStamp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 8. 30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러시아 숨마그룹, DP월드와 손잡고 러시아 극동개발 본격화

- 두바이의 항만·터미널 운영사인 DP월드가 최근 열린 제2회 동방경제포럼(EEF)를 계기로 러시아 극동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 DP월드는 최근 러시아 최대의 항만 물류 업체인 숨마(Summa) 그룹과 자루비노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등 경제특구 및 러시아 극동 내 내륙물류 시설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키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화물운송 국제 정보제공 웹사이트인 월드카고뉴스에 따르면, DP월드와 숨마그룹간 협력 파트너십 MOU는 화물운송 및 화물의 항만내 처리 관련 기술, 에이펙(APEC) 지역, 특히 자루비노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러시아 극동 교통회랑의 개발 및 협력증진 등에 합의함
- DP월드와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러시아 숨마그룹은 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온 러시아 극동개발에 발맞춰 자사 소유 또는 자사 보유지분이 많은 러시아 극동 항만의 개발과 투자 유치에 위해 세계적인 금융기관 전문가를 영입해왔음
 - 월드카고뉴스에 따르면 숨마그룹은 2015년에만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및 러시아의 국제적인 투자그룹인 VTB그룹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왔음
 - 특히 러시아 숨마그룹은 특히 러시아 극동의 자사 소유 항만인 자루비노항과 석탄 수출항으로 유명한 보스토치니 석탄 전용 터미널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 * 러시아 숨마그룹의 자회사이자 러시아 최대 선사이며 항만 인프라 운영사인 FESCO Transportation Group은 러시아 극동 최대의 항만인 블라디보스토크 항도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10대 민간 철도운영사이기도 해 향후 DP월드와 숨마그룹의 협력 관계는 내륙 교통·물류 분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숨마그룹의 자회사 시베리아비철금속은 매장량 1,830톤을 자랑하는 사하공화국(아쿠티야)의 사르다나 철광 등 러시아 굴지의 철광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하공화국 최대의 가스 생산업체로서 러시아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DP월드는 러시아 극동 투자를 위해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DP월드리시아란 합작회사를 설립함
 - DP월드는 동 회사의 지분 20%를 출자함
 - RDIF는 러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항만 개발 및 투자, 교통물류 인프라 투자가 주요 사업 분야로서 최근에는 역시 숨마그룹 소유의 러시아 서부 노보로시스크 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에 투자한 바 있음
- DP월드는 향후 러시아에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하여 러시아 등 신흥 시장공략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춘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전망됨
 - DP월드는 특히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의 지분 획득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루비노 항은 중국 동북2성(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동해 및 태평양 출해구로서 북한 나진항과 함께 중국의 '차항출해' 전략 실현의 대상 항만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루비노 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DP월드의 공세적인 러시아 극동 투자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극동개발, 중국의 차항출해 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이 지역의 물동량 증가와 육해상 복합운송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6. 9. 4,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Drewry, 컨테이너 박스 임대업계 어려움 지속

- Drewry의 2016 년 컨테이너 임대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임대 시장의 성장률은 임대수요 감소로 3.5%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1%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Drewry의 컨테이너 장비 선임분석가인 Andrew Foxcroft씨는 2016년 최소한의 증가만이 예상되고 있는 운송회사 직접 보유 컨테이너와 더불어 컨테이너 임대시장 역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그나마 내년부터는 다소 회복되어 2016~2019년 동안 연간 3.5% 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리퍼컨테이너의 임대수요가 선사의 구매수요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리퍼 및 탱크 컨테이너 분야의 수요만이 비교적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컨테이너 임대회사는 낮은 임대요율과 상당량의 컨테이너 재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 낮은 임대수요 및 최근 철강제품가격과 운영비용 급감으로 인해 신품 및 중고 컨테이너 가격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간 상황임
 - 일반 컨테이너 장기 임대(Long-term operating lease, LTL)요율은 15년 전보다 더 내려갔음
- 임대요율과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가동율도 떨어져 컨테이너 임대산업은 2009년 이후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임대업계는 이미 간접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절감압박을 받고 있음
 - 2015~2016년, 많은 업체 간 합병결과 총 850만 TEU의 컨테이너가 대형 임대업체간 이동했으며, 10대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라졌음
 - Foxcroft씨는 주요 컨테이너 임대업체가 2014년 말 15개사 정도로 감소하였고, 2016년 말까지는 약 12개 정도로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6.08.30.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아부다비, 칼리파 항만 확장으로 세계 최대 선박 수용 예정

- 아부다비 항만공사는 화물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칼리파(Khalifa) 항만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완공 시 세계 최대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공사를 통해 부두 및 수심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영기업인 아부다비 항만공사(Abu Dhabi Ports)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모든 항만의 개발, 운영,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70억 달러 규모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아부다비 항만은 1,000 미터의 부두 건설을 통해 600,000 제곱미터의 화물처리시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 나아가 현재 16 미터 높이의 주 항로(main channel)와 정박지(Basin)의 깊이를 18 미터로 증심할 예정임
- 본 확장 공사를 위해 아부다비 항만공사는 국립해양준설회사(National Marine Dredging Company)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수심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공사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임
- 아부다비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아부다비가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이번 확장 공사는 칼리파 항만계획 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1,500만 TEU 화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매년 200만 TEU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난해 아부다비 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150만 TEU로 전년도인 2014년의 110만 TEU보다 증가했음
- 칼리파 항만계획은 아부다비와 두바이 사이에 위치한 417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산업 단지인 키자드 프로젝트(Kizad Proejct)의 일환이며, 본 프로젝트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www.thenational.ac, 2016.08.27.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시장동향

호주 규제당국 멜버른 항 임대계약 경쟁유도

- 호주의 경쟁 감시단은 IFM¹⁾과 QIC²⁾ 컨소시엄을 멜버른 항의 50년 임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함
 - 항구 민영화 요구와 부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조치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냄
 - 호주 정부의 적절 수익에 초점을 둔 항구 임대계약으로 새로운 임차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두 이용료를 인상해 왔음
 - 민영화에 따른 이용료 인상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재임대계약은 10주간의 컨소시엄 평가를 거친 후 임대계약의 첫 15년 동안 적용할 부두 수수료 및 이용료를 결정하게 됨
- 두 컨소시엄은 뉴사우스웨일즈 항과 브리즈번 항의 운영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해 왔음
 - 멜버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DP World와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두 항구의 운영에도 관심을 나타냄
 - 항구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높은 국내 운송비용을 감안한다면 대다수 부두 이용자들은 가장 가까운 항구를 찾을 수밖에 없음
 - 항구 재임대계약에 경쟁관계를 도입하면 이용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부두 이용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8.17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헤이룽장 성, 연해주 지역 항만 통해 연간 6천만 톤 운송 계획

- 헤이룽장 성은 러시아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를³⁾ 이용,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항만을 통해 연간 6천만 톤 이상의 화물 운송 계획을 추진중임

1) IFM 컨소시엄은 호주 중심의 펀드매니저인 IFM Investors PL과 로테르담 중심의 펀드매니저인 APG Asset Management, 그리고 매킨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2) QIC 컨소시엄은 퀴즈랜드 주정부 소유의 펀드 매니저인 GIM Advisory Service와 캐나다 온타리오시의 고용인 퇴직 시스템을 위해 활동하는 Borealis Infrastructure Management Inc으로 이루어졌음
 3) 국제교통회랑은 러시아 내륙에 구축하고 있는 교통시스템으로 연해주 지역은 프리모리예-1(하얼빈-그라데코보-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보스토치니-동북아), 프리모리예-2(훈춘-크라스키노-포시에트/자루비노-동북아)가 구상됨



- 주요 화물은 컨테이너가 될 것이며 이용 항만은 나호트카항과 자루비노항이 될 것임
- 이 운송로가 활성화되면 중외중 운송⁴⁾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방향 물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러시아 접경지역의 중국영토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 러시아 측도 같은 노력뿐만 아니라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자료 : www.tass.ru, 2016.09.07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4) 중외중 운송이란, 중국-외국-중국으로 운송되는 물류루트